

문화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유물을 관람하는 모습.

◀광주국립박물관이 지난해 진행한 '어린이 박물관 학교' 참여자들이 자신이 만든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회비판적 주제를 넌센스로 풀다

곽덕준 개인전, 7월 15일까지 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7월 15일까지 일본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작가 곽덕준의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하정웅씨가 기증한 작품을 소개하는 '하정웅 컬렉션'의 하나로, 사회비판적인 주제를 넌센스와 유머를 통해 풀어나가는 곽씨의 작품을 '존재의 증명', '대통령과 곽', '무의미' 등 3가지 섹션으로 나눠 선보인다. 한국 국적으로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곽씨는 두 사회에서 모두 타인으로 살아 가고 있는 스스로의 정체성 문제를 작품으로 풀어내는 작가로, 가볍지 않은 주제를 역설적이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것으로 국제 미술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는 카터, 레이건, 부시, 클린턴 등 초상화를 이용한 '대통령과 곽'시리즈(12점)를 비롯해 만화적 기법을 도입한 '무의미'시리즈(18점) 등 53점의 작품이 나온다. 교토시립미술관 주최 '근대 일본의 자화상'전에 출품했던 대표작 '자화상'등도 눈여겨 볼 작품이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곽씨의 예술세계 전반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자화상'



'부시 곽'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062-613-714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물도 관람하고 강좌도 듣고...

전대박물관 '한국인의 본래면목'

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학교'

광주민속박물관 '민속공예교실'

봄을 맞아 지역 박물관들이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강좌와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눈에 띈다. 박물관의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다양한 주제로 진행해 온 전대 박물관의 문화 강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강의로 인기가 높다.

2012년 1학기 박물관 문화강좌는 '한국인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는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6월20일(매주 수요일 오후 2시·웅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까지 13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21일 첫 강의 '민족고유문화와 한류'(박성

지역 박물관들을 프로그램 다채... 토요일 체험학습 마련

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시작으로 '한반도의 선사문화(임효재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고분벽화의 아름다움과 색채미'(이태호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한국 신화의 원류(김화경 영남대 국문과 교수), '허황옥 루트-인도에서 가자까지'(김병모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다.

6월말에는 러시아(모스크바·레닌그라드·바이칼 등)로 현장 답사로 떠날 예정이다. 수강생은 21일까지 모집한다. 일반 8만원, 교직원·대학생·경로 6만원.

강의 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류·영화 상영시간도 마련된다

다류 '제주에 천년 왕국이 있었다', '고선지', '한국의 뿌리 탐사, 바이칼을 가다', '황금의 나라, 황금의 역사', '스시·똥장공·김치' 등과 영화 '이어도', '학생부군신위'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530-3585

국립광주박물관은 4월 14일~11월 24일 토요일마다 문화 이론 수업과 현장답사, 체험이 결합된 '제6기 광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개설한다.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70명을 대상으로 한다.

조현중 관장과 박물관 학예연구사가 강사로 나와 역사와 문화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현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구로 보는 인류문화' '토기와 청동기' '집과 마을' '고인돌과 옹관묘' '삼국의 고분' '마한과 가야' 등 흥미로운 주제가 많다. 또 필암서원, 녹우당, 가사문학 등이 지역 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도 결합된다.

광주박물관은 또 2월~12월 매주 토요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나는 토요일 즐거운 박물관'과 방학에 맞춰 진행되는 '겨울! 박물관 이야기'(2월 매주 수요일), '여름! 박물관 이야기'(7월~8월 매주 수요일) 등도 진행한다. 문의 062-570-7053.

광주민속박물관은 어린이, 성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가족 대상 교육 ▲성인 대상의 교양교실 ▲다문화가정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세시풍속 행사 ▲민속체험마당으로 운영된다.

가족대상 교육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민속공예교실'(3~4월, 9~11월), '우리나라 바로알기'(5·9·10월), 민속생태마을 탐방(5·10월)과 여름방학기간에 진행되는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산책'(7월) 등으로 펼쳐진다.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민속과 우리 지역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다.

또 세시풍속행사는 '설맞이 민속문화 체험마당', '빛고를 정월대보름 한마당', '단오, 민속박물관에서 놀자'(6월)와 추석맞이 민속놀이 한마당(9월) 등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통체험교실'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인 민속박물관 대학(3~6월) 등이 결합된다. 문의 062-613-53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학 평론집 '낮선 무대를 찾아서' '가출' 출간

지역연극 현황과 한국연극에 대한 단상

지역에서 공연되는 연극 작품들에 대한 전문적인 비평을 만나기는 어려운 게 지역 문화계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희곡작가이자 연극 평론가로 활동중인 김영학씨가 최근 내놓은 두권의 책은 지역 연극계에 단비같은 존재다.

'낮선 무대를 찾아서'는 그가 10년만에 내놓은 두번째 연극 평론집이다.

책에는 전국연극제 금상 수상작인 '막차 타고 노을 보다'와 한옥근 교수 정년 기념 공연이었던 '파우스트의 가출' 등 10여년간 지역 무대에 올려진 작품들에 대한 평을 실었다.

또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 마당극 '어느 봄날에' 등 지역 민중극의 흐름도 짚었으며 평화연극제, 5·18 청소년 연극제 등 지역 연극계에 대한 평가도 담았다.

김씨는 이번에 '나는 흥도로 간다'에 이어 16년만에 두번째 희곡집도 함께 펴냈다. 수록 작품은 극단 '청춘'의 요청으로 쓴 '만월', 자신의 극단 '허방'을 창단한 후 처음 연출한



'가출', '세 친구', '칼을 든 시인, 고경명', '불꽃 놀이' '여배우 문화', '식물인간' 등 모두 7편이다.

작품집에 실린 희곡들은 텍스트로만 머물지 않고 모두 연극무대에서 공연돼 관객들을 만났다.

조선대 출신으로 '1960년대 한국 모더니즘 희곡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김씨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희곡이 당선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산창작기금, 문예진흥원 신진문화가 지원금 등을 받았으며 현재 전남대·조선대 등에 출강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진기행' 김승옥 등단 50주년 작가총서 출간·기념 낭송회

순천 출신으로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등을 펴낸 소설가 김승옥(71)이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는다.

작가는 서울대 불문과 재학 중이던 1962년 한국일보에 단편 '생명연습'이 당선되며 문단에 나왔다. 이후 1980년 동아

일보에 '먼지의 방'을 연재하던 중 군검열로 작품의 일부가 삭제되고 광주민주화운동이 터지자 절필했다.

2004년 내놓은 산문집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줄곧 침묵을 지켰지만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선보인 빛나는 작품들은 후배 문인들과 독자들에 영감을 미치고 있다.

후배 문인들을 중심으로 50년 작품세계를 돌아보는 책이 출간된다. 계간 문화나무는 '한국작가총서



이 한 권의 책'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김승옥 편을 준비해 이달 출간한다.

이 책에는 문학평론가 정과리, 소설가 김채원·김도연 등이 작가의 단편 '서울, 1964년 겨울'과 '건(乾)'을 읽고 쓴 글과 작가가 예전에 쓴 자전적 에세이도 함께 수록된다.

책 출간에 맞춰 오는 23일 종로구 연건동의 함춘회관에서는 등단 5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 낭송회도 마련된다. /연남뉴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